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 확실

도 속원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제1공약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이 확실시된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동해안 중심의 북방경제진출'의 핵심 교통망이다. 완공 시 서울~춘천~속초를 9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기사 3·23면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경제성 분석 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비용편익(B/C)이 0.97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성 분석에서 1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며 따라 사업 추진 여부의 최종 판단기준인 정책적 종합분석(AHP)은 0.5 이상 기대된다. 이 경우 올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는 1, AHP는 0.5 이상이 사업타당성 판단 기준이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된 국내 철도사업의 경우 B/C가 0.5를 넘긴 사례도 드물다는 면에서 동서고속화철도의

한국교통연구원 "비용편익 0.97-경제성 높다" 분석

기획재정부 4월 예타조사 거쳐 올 하반기에 착수 전망
관광 수요 등 반영 높은 평가...서울~춘천~속초 90분 가능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



이번 비용편익 분석은 과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산악지형이어서 건설비용이 영호남 지역보다 1.5배 이상 들어가

는 강원지역의 철도사업 B/C가 0.97이라는 점은 사업 추진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경제성 용역

분석 결과가 높게 나온 이유로 △주중·주말·성수기 관광 수요 반영 △교량 연장 최소화, 정거장 시설규모 축소, 신호 시스템 변경 등 기술조사를 통한 사업비 700여억원 절감 △'용산~속초' 구간 정차역 분석을 통한 합리적 운행계획 마련 △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공사 기준단가 현실화 등) 적용 △ITX 정준 및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증가 등을 들었다.

이번 용역 결과는 앞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 검토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4월 말 최종결과가 나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반영된다.

최문순 지사는 "춘천~속초 고속철도는 향후 동해북부선을 통해 TSR(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 및 북극항로로 연결돼 러시아(유럽)·중국과 관광 활성화는 물론 자원 교역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예타에 이번 용역 결과가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홍현표기자

최재경 도래미콘조합 이사장 연합회장 출마

최재경 도래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이 9일 제9대 한국래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다.

한국래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제9대 연합회장 후보자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24일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최 이사장은 1994년 도래미콘공업협동조합 초대이사장을 맡은 이후 22년 동안 도래미콘공업협동조합을 이끌어 왔다. 도내 대형 관급 공사현장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정착할 수 있



도록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적극 대응, 중소 조합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도내 래미콘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이사장은 "지난 2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간 과열경쟁, 골재 부족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같은 래미콘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전국 중소 래미콘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춘천~속초 동서고속鐵 경제성 있다”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성수기 수요 등 반영
비용대비편익서 0.97
조기착공 파란불

▶ 관련기사 3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에 파란불이 켜졌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 등 연구용역팀이 실시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대안노선 및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대비편익(B/C)이 0.97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는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국토부와 강원도 관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공개됐다. 일반적으로 B/C는 1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노태우 정부 이래 30년간 과거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사항으로 제시됐으나 2001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때 B/C가 0.49~0.73로 낮아 공론화

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경제성 분석에서 연구용역팀은 주중·주말·성수기 관광 수요를 추가로 반영한 신규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고, 교량연장 최소화화 및 정거장 시설 규모 축소 등으로 절감된 수준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또 용산~속초 14개 정차역을 하루 36회에 걸쳐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합리적인 운행계획을 마련하고, IIX·

경춘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더해 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표준지침(공사 기준단가 현실화 등)을 적용, 1.0에 가까운 B/C를 도출해 냈다.

경춘선 복선전철 IIX 운행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증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최문순 지사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앞으로 동해 북부선을 통해 T·SR·TKR 및 북극항로로 연결되면 러시아, 유럽, 중국과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원 교역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에 이번 용역결과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하반기에 기본계획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올 SOC 9261억 투입

원주국토관리청

원주국토관리청(청장 손종철)은 올해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SOC사업에 총 9261억원을 투입해 살기 좋은 강원권 국토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평창겨울올림픽 주요 경기장 접근도로 개설에 2187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61.7%의 공정률을 달성할 계획이며, 간선도로망 확충에 3232억원을 투입해 현내~송현진1, 양구남면우회도로 등 5개 사업은 올해 완공하고, 원주~새말, 영월~평창방림간도로는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인 제2영동고속도로사업에는 민자포함 5139억원이 투입돼 내년 11월 완공 목표로 올 연말까지 86.7%의 공정률을 달성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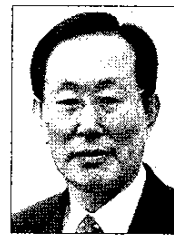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에는 지난해보다 6.8% 증가한 1334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하천 6곳에는 찾고 싶은 수변공간이 조성되며, 지방하천 49곳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재해예방,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1430억원을 투입해 위험도로 개량,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유휴지를 이용해 휴식공간과 특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원주/백오인

최재경 도레미콘조합 이사장 연합회장 선거 출마

최재경(70·사진)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제9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8일 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최재경 이사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9일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간다. 특히 최 이사장은 오는 10일 선출되는 신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한 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현철

춘천~속초 고속철 착공 '청신호'

교통연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0.97 달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에 강원도 환영

강원도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조기 착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 등 연구 용역팀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가 0.9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국토부와 강원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춘천~속초 철도 대안노선 및 활성화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공개됐다.

이 사업은 노태우 정부 이래 30년간 과거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사항으로 제시됐으나 2001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때 B/C가 0.49~0.75로 낮아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경제성 분석에서 연구 용

역팀은 주중·주말·성수기 관광 수요를 추가로 반영한 신규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고, 교량연장 최소화와 정거장 시설 규모 축소 등으로 절감된 수준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또 용산~속초 구간 14개 정차역을 1일 36회에 걸쳐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합리적인 운행계획을 마련하고, ITX·경춘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더해 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공사 기준단가 현실화 등)을 적용, 1.0에 가까운 B/C를 도출해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이번 용역 결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정부의 공약 실천의지를 확인한 계기로 평가하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진행 중인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3개월 내

통과 여부에 대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춘천~속초 철도가 완공되면 90분 이내에 서울~춘천~속초 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동서철도 수송능력 강화로 국가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뿐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대륙관통철도(TCR), 나아가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최적 노선을 제공, 북방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TSR, TCR 연결을 위한 동해 북부선 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해당 노선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춘천~속초 철도가 앞으로 동해 북부선을 통해 TSR·TCR 및 북극항로로 연결되면 러시아, 유럽, 중국과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자원 교역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예타에 이번 용역결과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